

## 친밀성이 이타행동에 미치는 효과

정 영 숙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미국 Arizona 주립대학교 부속의 세 개 보육원에 다니는 4세에서 6세의 남,여 아동 78명을 대상으로 잠재수혜자의 특성에 따른 취학전 아동의 이타행동(타인을 이롭게 하려는 의도적이고 자발적 행동)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실험에 참여한 아동에게 (1) 무척 같이 놀고 싶은 아이 (좋아하는 친구)나 (2) 전혀 같이 놀고 싶지 않은 아이 (싫어하는 아이)가 누구인지 이름을 대도록 하거나, 실험에 참여한 아동이 모르는 낯선 아이(모르는 아이)의 이름을 실험자가 알려줌으로써 잠재수혜자를 조작한 후, 아동에게 혼자 5분간 조각그림 맞추기를 할 수도 있고 상을 얻기 위해 다소 지루한 과제(종이접기)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종이를 접을 수 있는 5분 동안 피험자들은 접은 종이를 잠재수혜자(좋아하는 친구, 모르는 아이, 싫어하는 아이)의 선물 상자에 넣음으로써 자신의 상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실험 결과, 아동들은 잠재수혜자가 아동이 싫어하는 아이일 때보다는 모르는 아이에게, 모르는 아이보다는 아동이 좋아하는 대상에게 자신의 상을 더 많이 나눠주었다.

1) 지난 20여 년 간 아동의 이타행동 (타인을 이롭게 하려는 의도적이고 자발적인 행동)에 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일반적으로 친사회행동을 연구하는 많은 연구자들은 아동이 일단 타인을 돕는 행동을 학습하게 되면, 잠재수혜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하지 않으리라는 가정을 하는 것 같다. 따라서 아동이 “누구를 돕는가”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별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연구자들이 이 주제에 대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사실은 사회심리학자들이 성인들이 잠재적 도움수혜자가 누구냐에 매우 민감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일부 사람들을 돕게된다는 결과를 계속 보고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다소 의아한 일이기도 하다(Berkowitz, 1972; Fink, Rey, Johnson, Spenner, Morton & Flores, 1975; Gruder, 1974; Macauley, 1975; Piliavin, Piliavin, & Rodin, 1975; Schaps, 1972; Schopler & Matthews, 1965; Staub, 1974, 1978).

도움을 받을 잠재수혜자의 특성에 따라 아동의 도움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본 연구가 매우 적지만, 아동들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잘 돕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Eisenberg, 1983; Eisenberg & Pasternack, 1983). 아동이 누구를 돕느냐를 결정짓는 요인 중의 하나는 아동과 잠재수혜자의 관계이다. 아동과 도움대상자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차원은 도움대상자를 아동이 아느냐 모르느냐, 또는 좋아하는 사

1) 이 논문은 1997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대학교수 해외파견 연구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 연구를 수행하는데 큰 도움을 준 Arizona 주립대학교 심리학과 의 Nancy Eisenberg 교수와 Tracy Spinard 박사에게 감사사를 드립니다.

람이나 싫어하는 사람이나, 또는 가족이나 아니나 등이다. 도움상황에서 잠재수혜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아동의 도움 의향이 달라지는지를 살펴본 연구에서, 아동들은 잠재수혜자가 다른 사람들인 경우보다는 가족과 친구인 경우에 더 많이 도와주려고 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돕지 않으려는 차별적 반응을 보여주었다(Eisenberg, 1983). 2세 아동이 낯선 어른보다는 자기 아버지에게 자신의 장난감을 더 잘 주려고 하는 것도 상대방에 따라 아동의 친사회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가 될 것이다(Rheingold, Hay, & West, 1976).

상식적으로 아동들은 싫어하는 친구보다는 좋아하는 친구에게 더 많은 도움행동을 보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아동들이 다른 아이보다는 친구가 자신에게 더 많이 나누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보고나(Berndt, 1978), 싫어하는 사람이나 낯선 사람보다는 친구에게 더 많이 나누어 줄 것이라고 보고한 자료는(Berndt, 1981a, 1981c; Furby, 1978) 이런 가능성을 뒷받침해 준다.

그러나 도움을 받을 수혜자의 특성(예를 들어, 좋아하는 친구 대 싫어하는 친구)에 따라 아동의 도움성향을 살펴본 연구들은 그 양상이 복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연구에서는 기대와 일치하게 아동들은 잠재수혜자가 친구가 아닌 경우보다 친구인 경우에 더 많이 나눠주었다(Staub & Sherk, 1970; Berndt, 1981c). 그러나 다른 연구들에서는 아동들이 친구에게나 친구가 아닌 경우나 차이 없이 똑같이 나눠준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Berndt, 1981b, 일부 과제에서; Staub & Noerenberg, 1981). 때로는 아동들이 낯선이나 친구가 아닌 사람보다도 친구에게 더 적게 나누어 주고 더 잘 돕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고하는 연구들도 있다(Berndt, 1981b; Fincham, 1978; Sharabany & Hertz-Lazarowitz, 1981; Wright, 1942).

도움상황과 관련되어 도움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감정적인 이유들을 살펴보는 것은 잠재수혜자에 따라 아동의 도움행동이 복잡하게 나타난 선행 연구결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이나 성인

모두 여러 가지 이유에서 타인을 도울 수 있다. 때로는 타인의 곤경에 관심을 두고 자발적으로 돕기 위해서, 때로는 자신이 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기 위해서, 때로는 구체적인 상을 얻기 위해 타인을 도울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상대방을 도와주라는 명시적 요구 없이 아동이 자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거나(Staub & Sherk, 1970), 아동이 잠재수혜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은밀한 상황에서(Buhrmester, Goldfarb, & Cantrell, 1992), 아동들은 친구가 아닌 아이보다 친구를 더 많이 도와주었다. 반면에, 타인에게 도움을 주게 되면 자신이 더 많은 것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경쟁적 상황에서나(예; 아동이 상대방에게 색연필을 빌려주어 자신의 그림을 덜 칠하게 되면 상을 적게 받게 되는 경우, Berndt, 1981b), 근사한 장난감과 그렇지 않은 장난감 둘 중의 어느 하나를 택하여 상대방에게 주어야만 하는 상황에서는(Wright, 1942), 아동들은 친구보다는 그저 얼굴만 알거나 모르는 아이에게 오히려 더 관대하게 행동하였다. 요약하면, 자신과 상대방간에 경쟁이 필요 없고 명시적인 외적 압력이 없는 자발적 상황일수록 아동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친구를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잘 도운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타인으로부터 착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 아동들은 낯선 이도 잘 돕고, 더 나아가 싫어하는 사람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 요인이 사라지거나 약화되는 상황에서는 아동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친구를 더 잘 돕는 것 같다.

본 연구는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잠재수혜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아동의 도움이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취학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이들이 잠재수혜자와의 관계에 보다 민감할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움상황과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도움상황과의 차이이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거의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에서 사용된 도움상황은 아동이 직접 수고하여 남을 돕기보다는, 실험자의 이야기를 듣는 대가로 또는 게임을 한 대가로 받은 선물을 잠재수혜자에게 나누어

주는 상황이었다. 이에 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다소 힘든 노력을 통해 직접 수고함으로써 (예를 들어, 지루한 과제를 수행하는 것) 다른 사람을 도울 기회를 제공하는 도움상황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남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경우를 자주 접한다(예; 아픈 아이에게 이야기책을 읽어 주는 것, 또는 바쁜 어머니를 도와주기 위해 방 청소를 하는 것). 자신이 노력을 들여 힘든 일을 하여 남을 돕는 경우는 단순히 개인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물질을 나누어주는 것과는 다른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의 노력을 동원하여 잠재수혜자를 도와야 되는 상황에서 아동들의 도움행동을 살펴봄으로써, 아동의 도움행동 상황을 확장시키는 의의도 있다.

아동들은 “착한 아이, 좋은 아이”가 되기 위해 타인을 도울 수 있고, 잠재수혜자와 경쟁관계가 되면 자발적 도움이 감소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요소들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아동의 보다 자발적인 도움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상황을 조작하였다. 첫째, 사회적 바람직성이나 실험자의 인정과 같은 요인의 작용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동이 잠재수혜자를 얼마나 돕는지를 실험자가 모르는 상황을 설정하였다. 둘째, 아동이 보다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아동에게 자유롭게 종이접기(약간 지루한 과제)를 할 수도 있고 조각그림 맞추기를 할 수도 있는 선택적 상황을 제시하였다. 셋째, 아동의 도움 행동이 자발적으로 되도록 종이접기를 자유롭게 자신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 잠재수혜자를 위해서 할 수도 있는 선택적 상황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아동들의 자발적 도움을 유도하여 잠재수혜자와의 관계에 따라 취학전 아동들의 도움행동을 살펴보고자 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언을 하였다: 취학전 아동들은 잠재수혜자가 싫어하는 아이나 모르는 아이일 때보다는 좋아하는 친구일 때 잠재수혜자를 위해 과제를 더 열심히 수행할 것이다.

## 방 법

피험자. 취학전 남·여 아동 78명(남자아이 39명과 여자아이 39명)이 본 실험에 참여하였다. 실험에 참여한 아동들은 4세에서 6세의 아동들로(4세 아동 41명, 5세 아동 27명, 그리고 6세 아동 10명), 미국 Arizona 주립대학에 소속된 세 곳의 보육센터(Child Study Lab, Child Developmental Lab 및 Open Horizon Preschool)에 다니는 아동들이었다. 본 실험에 포함된 세 가지 실험조건 각각에 26명의 아동(남·여 각각 13명씩)이 참석하였는데, 이들의 각 조건별 평균 연령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가지 실험 조건별 평균 연령을 보면, 잠재수혜자가 좋아하는 친구 조건의 경우 아동들의 평균연령은 5.03세(표준편차: .80), 모르는 아이 조건의 경우 아동들의 평균 연령은 4.97세(표준편차: .79), 그리고 싫어하는 아이 조건의 경우 아동들의 평균 연령은 4.97세(표준편차: .86)이었다.

실험설계.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도울 수 있는 잠재수혜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아동의 도움 정도가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수혜대상자로서 아동이 좋아하는 친구, 아동이 모르는 아이, 그리고 아동이 싫어하는 아이를 선정하였다. 아동이 도울 잠재수혜자는 다음과 같이 조작하였다. 실험에 참여한 아동에게 (1) 함께 놀고 싶은 아이가 누구인지 (좋아하는 친구 조건), 또는 (2) 함께 놀고 싶지 않은 아이가 누구인지 (싫어하는 아이 조건)를 아동이 대답하도록 질문하거나, 아니면 (3) 실험에 참여한 아동과 같은 또래의 아동이 모르는 다른 아이의 이름을 실험자가 말해주었다 (모르는 아이 조건). 그리고 친사회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성차를 보고하는 연구들이 많기에 아동의 도움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한 변인으로 성(sex) 변인을 포함시켰다. 따라서 본 연구는 3 (잠재수혜자의 유형: 좋아하는 친구, 모르는 아이, 및 싫어하는 아이) \* 2 (sex) 요인설계로 구성되었다.

실험절차. 실험은 성인 여성에 의해 아동 개인별로 실시되었다. 실험자는 아동이 실험에 참여하기 전에 아동이 속한 교실에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거나

놀이를 함께 하면서 충분히 친숙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실험자가 아동과 친숙해진 후 실험자는 아동에게 다른 놀이방에 가서 게임을 하고 싶은지를 묻고서 아동이 원하는 경우, 아동을 실험실에 데려와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아동자신의 선물 상자 준비 및 예비 질문. 실험실에 도착하면, 실험자는 아동의 이름을 묻고 그 이름을 종이에 적은 후 아동 앞에 있는 두 개의 상자 중 하나에 부착하였다 (이는 아동의 '자기선물 상자'가 됨. 나머지 다른 한 상자는 아동이 도움 잠재수혜자의 선물 상자로 도움수혜자의 이름이 확정된 후에 실험자가 해당 이름을 적어 부착하는 상자로 '타인선물 상자'가 됨). 실험에 참여한 아동을 위해 참여 아동의 이름이 부착된 자기선물 상자를 마련한 후, 실험자는 다음과 같은 예비 질문을 하여 아동들이 잠재수혜자에 대한 지명을 쉽게 하도록 하였다. 아동이 도움 대상이 좋아하는 친구가 될 경우에는 "아동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를 물었고, 아동이 도움 대상이 싫어하는 아이가 될 경우에는 "아동이 싫어하는 음식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그리고 아동이 도움 대상이 모르는 아이가 될 경우에는, 이 조건에 속한 아동의 반에게는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를 물었고, 나머지 반에게는 싫어하는 음식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잠재 도움수혜자의 지정 및 도움수혜자의 선물 상자 준비. 예비 질문이 끝나면, 아동들은 아동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아이의 이름을 묻는 질문을 받았다. 도움 대상이 좋아하는 친구가 되는 아동에게는 "너의 반에서 네가 정말로 함께 놀고 싶은 제일 좋아하는 친구가 누구인지?" 물었고, 도움 대상이 싫어하는 친구가 되는 아동에게는 "너의 반에서 조금도 같이 놀고 싶지 않은 아이가 누구인지" 물었다. 실험자는 아동이 대답하는 이름을 적어 아동 앞에 있는 두 개의 상자 중 이름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한 상자(이것이 아동이 도움 '도움수혜자의 선물 상자'가 됨)에 부착하였다. 아동이 도움 대상자가 모르는 아이의 경우에는 실험자가

'Stanley'(피험자가 남자아동인 경우) 또는 'Jonny'(피험자가 여자아동인 경우)라는 이름을 적어 이들은 다른 보육센터에 있는 실험에 참여한 아동이 전혀 모르는 아동이라고 말해주고 아동이 모르는 아이임을 확인하였다.

과제 설명 및 타인(잠재수혜자)에게로의 도움 필요 유도. 잠재적 도움수혜자의 지정이 끝나면, 실험자는 아동에게 아동이 해야 할 일이 복사된 종이를 반으로 접는 것 (취학전 아동에게는 지루하고 재미없는 과제임) 임을 알려주고 시범을 보였다. 이어 실험자는 아동의 앞에 놓여진 뚜껑이 덮여 있고 그 위에 각각 실험에 참여한 아동의 이름과 잠재수혜자의 이름이 부착된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자 중 잠재수혜자의 이름이 부착되어 있는 상자(잠재수혜자의 선물 상자)를 지적하면서 아동이 수행해야 할 일과 상자와의 관련성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잠재수혜자의 선물 상자에는 실험 조건에 따라, 아동이 좋아하는 친구(좋아하는 친구 조건), 싫어하는 아이(싫어하는 아이조건), 아니면 아동이 모르는 다른 아이 (모르는 아이 조건)의 이름이 부착되어 있었다.

실험에 참여한 아동이 잠재수혜자를 도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해주었다. 아동이 좋아하거나 싫어한다고 대답한 아이의 이름, 아니면 실험자가 알려준 다른 보육원의 낯선 아이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해주면서, 그 "잠재수혜자"는 종이를 접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음을 알려주고, 실험에 참여한 아동에게 그 아이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노라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그 상자에 종이를 많이 접어 넣으면 많이 접어 넣을수록 그 아이가 더 많은 선물을 받게된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아울러 실험에 참여한 아동이 종이접기를 끝마친 후에도 이 잠재수혜자의 선물 상자는 계속 거기에 남겨둘 것이기 때문에 실험에 참여한 아동이 그 잠재수혜자의 상자에 종이를 얼마나 많이 접어 넣었는지 실험자도 모르고 선물을 받게 될 잠재수혜자도 모를 것이라고 말해줌으로써 아동이 보다 사적인 상황에

서 도움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잠재수혜자의 선물 상자에 대한 설명이 끝난 후에, 실험자는 아동 자신의 이름이 부착되어 있는 나머지 다른 한 상자(자기선물 상자)를 지적하면서, 이 상자에 접은 종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동 자신이 더 큰 선물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었다. 즉, 아동 자신의 상자에 접은 종이가 많을수록 아동 자신이 더 큰 선물을 받게 되고, 아동이 도울 잠재수혜자의 상자에 접은 종이가 많을수록 그 아이가 더 큰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다. 설명이 끝난 후, 실험자는 아동에게 두 개의 상자의 수혜자가 각각 누구인지, 그리고 각 상자에 종이를 많이 접어 넣을수록 누가 더 큰 선물을 받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아동이 각 상자와 과제 수행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실험자는 아동에게 종이를 접을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이 시간 동안은 아동이 원하면 종이를 접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각그림맞추기를 해도 좋다고 말해주었다. 이것은 아동으로 하여금 타인을 보다 자발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 설명이 끝난 후 실험자는 아동을 혼자 두고 스크린으로 가려진 실험실 다른 쪽으로 옮겨갔다. 이 역시 아동에게 미치는 실험자의 존재를 최소한으로 하여 아동이 자유롭게 행동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동을 혼자 두게 한 5분 후에 실험자는 다시 아동에게로 돌아와 아동이 자신의 선물 상자에 얼마나 종이를 접어 넣었는지를 세도록 보조실험자에게 아동의 선물 상자를 전달해 주었고, 보조실험자는 아동이 접은 종이의 개수를 센 후, 아동에게 줄 선물로 두 종류의 스티커를 실험자에게 건네주었다. 실험자는 아동에게 두 종류의 스티커를 제시하고, 그 중 아동이 좋아하는 하나를 선택해 가지도록 하였다. 실험자가 아동을 교실로 데려다주는 사이에 보조실험자는 실험에 참여한 아동이 잠재수혜자의 선물 상자에 접어 넣은 종이의 개수를 측정하였다.

### 이타행동의 측정.

본 연구에서 아동의 이타행동은 아동이 5분간 잠재수혜자를 위해 접은 종이의 비율로 정의하였다. 즉, 아동이 종이접기를 한 5분 동안 잠재수혜자의 선물 상자에 접어 넣은 종이의 수를, 아동이 5분간 접은 종이의 총 수 (자기선물 상자에 접어 넣은 종이의 수 + 잠재수혜자 선물 상자에 접어 넣은 종이의 수)로 나눈 백분율로 측정하였다. 이것은 아동의 나이에 따라 개인에 따라 5분간 종이를 접는 절대량에 개인차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잠재수혜자의 선물 상자에 5개의 종이를 접어 넣은 아이와 2개를 접어 넣은 아이가 있을 경우, 어느 아동이 더 많이 타인을 도왔는지는 각 아동이 5분간 접은 종이의 총 개수를 고려해야 한다. 5분간 총 20개의 종이를 접은 아동이 그 중 5개를 타인을 위해 접은 경우와 5분간 총 4개의 종이를 접은 아동이 그 중 2개를 타인을 위해 접은 경우 후자의 경우(50% 도움)가 전자(25%의 도움)보다 남을 더 많이 도운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 아동의 도움정도(이타성)

= 잠재수혜자를 위한 수행량 / 총 수행량

$$= \frac{\text{잠재수혜자의 선물상자에 접어 넣은 종이의 수}}{\text{자기선물상자의 종이수 + 잠재수혜자선물상자의 종이수}}$$

### 결 과

취학전 남,녀 아동 78명을 대상으로 잠재수혜자의 대상에 따른 수행을 분석한 결과 남,녀 아동간 성의 주효과와 성과 실험 조건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남,녀 아동의 자료를 합쳐 분석하였다.

먼저, 세 가지 실험 조건에 속한 아동들이 자기의 선물 상자와 잠재수혜자의 선물 상자에 접어 넣은 종이의 전체 수, 즉 아동이 5분간 수행한 총 수행량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2,75)=0.66, ns$ ). 잠

잠재수혜자가 좋아하는 친구 조건의 아동들이 5분간 접은 종이의 전체 수는 평균 14.15개(표준편차:8.07), 잠재수혜자가 모르는 아이인 조건의 아동들이 5분간 접은 종이의 전체 수는 평균 15.65개(표준편차:7.95), 그리고 잠재수혜자가 싫어하는 아이인 조건의 아동들이 5분간 접은 종이의 총 수는 평균 16.65개(표준편차:7.60)이었다. 아동들이 5분간 접은 종이의 전체 수에 차이가 없다는 결과는 후속 결과를 해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아동이 행한 도움의 정도(이타행동)는 상대적으로 자기의 선물 상자에 더 많이 넣었는지 아니면 해당 잠재수혜자의 선물 상자에 더 많이 넣었는지가 관건이 된다.

잠재수혜자가 달라짐에 따라 아동들이 자신의 선물상자와 해당 잠재수혜자의 선물 상자에 접어 넣은 종이의 개수의 평균이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잠재수혜자에 따라 아동이 자기선물 상자와 잠재수혜자 선물 상자에 접어 넣은 종이의 수

잠재수혜자 유형	선물상자의 종류	
	잠재수혜자	자기
좋아하는 친구	6.85 (4.02)	7.31 (4.54)
모르는 아이	4.96 (4.85)	10.69 (5.48)
싫어하는 아이	2.50 (2.89)	14.15 (6.14)

( )안의 수치는 표준편차임.

표 1을 보면, 잠재수혜자가 아동이 좋아하는 친구인 경우, 아동들은 자신의 선물 상자에 평균 7.31개의

종이를 접어 넣었고 좋아하는 친구의 선물 상자에는 평균 6.85개의 종이를 접어 넣어, 자신을 위해서나 좋아하는 친구를 위해 거의 유사하게 종이를 열심히 접었음을 보여준다. 잠재수혜자가 모르는 아이인 경우, 아동들은 자신의 선물 상자에는 평균 10.69 개를, 그리고 모르는 아이의 선물 상자에는 4.96 개의 종이를 접어 넣었다. 그리고 잠재수혜자가 아동이 싫어하는 아이인 경우, 아동들은 자신의 선물 상자에는 평균 14.15 개나 접어 넣은 반면 싫어하는 아이의 선물 상자에는 겨우 2.50 개의 종이만을 접어 넣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도움 정도를 아동이 해당 잠재수혜자의 선물상자에 접어 넣은 종이의 수를 자신과 잠재수혜자의 선물상자에 접어 넣은 종이의 전체 수로 나누어 그 비율로 측정하였다. 표 2에는 잠재수혜자에 따른 아동의 도움 정도의 평균이 제시되어 있다.

표 2. 잠재수혜자에 따른 아동의 도움정도\* (단위:백분율)

	잠재수혜자의 유형		
	좋아하는 친구	모르는 아이	싫어하는 아이
평균	49.47	29.60	15.43
표준편차	19.06	25.71	13.95
	(n=26)	(n=26)	(n=26)

\* 도움정도는 아동이 5분간 잠재수혜자의 선물상자에 접어 넣은 종이의 수를 아동이 5분간 접은 전체 종이의 수(자신의 선물상자에 접어 넣은 종이의 수 + 잠재수혜자의 선물상자에 접어 넣은 종이의 수)로 나눈 백분율임.

수치가 클수록 타인의 선물상자에 접어 넣은 종이 가 많은 것을 의미함.

표 2를 보면, 잠재수혜자가 아동이 좋아하는 친구인 경우, 아동들은 5분간 자신이 접은 종이의 양의 약

50% 정도를 타인을 위해 접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달리 말하면, 잠재수혜자가 아동이 좋아하는 친구인 경우에, 아동들은 자신이 한 수행의 50% 정도는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50%는 타인을 위해서 종이접기 과제를 수행하였다. 이와 비교해서 잠재수혜자가 아동이 싫어하는 아이인 경우 그 양상은 아주 다르다. 잠재수혜자가 아동이 싫어하는 아이일 경우에, 아동들은 대부분의 수행을 자신을 위해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동들은 5분 간 자신이 한 과제 수행의 겨우 약 15% 정도를 타인을 위해 할애했고 나머지 85%는 자신을 위해 과제를 수행하였다. 즉, 잠재수혜자가 아동이 싫어하는 아이인 경우, 아동들은 싫어하는 아이의 선물 상자에는 거의 종이를 접어 넣지 않고 대부분 자기를 위해 종이를 접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잠재수혜자가 아동이 모르는 아동인 경우, 아동들은 자신의 전체 수행 중 약 30%를 타인을 위해 그리고 나머지 70% 정도를 자신을 위해 수행하였다.

세 집단간의 아동의 도움정도를 변량분석한 결과, 본 연구에서 예언한대로, 아동들은 잠재수혜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그 대상을 위해 종이를 더 많이 접어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F(2,75)=18.71, p<.000$ ). 그리고 세 집단간의 구체적 차이를 Scheffe 검증한 결과 각 집단간의 평균의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5$ ). 즉, 아동들은 아동이 싫어하는 아이를 위해서보다는 모르는 아이를 위해 종이를 더 많이 접었고, 아동이 모르는 아이를 위해서보다는 아동이 좋아하는 친구를 위해서 더 많은 종이를 접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적으로 본 실험에 참여한 78명의 아동을 4세 집단( $n=41$ ), 5세 집단( $n=27$ ), 6세 집단( $n=10$ )으로 나누어 잠재수혜자에 대한 도움정도를 살펴본 결과, 집단별 평균 도움정도는 각각 32.90%, 29.79%, 그리고 34.48%이었다. 이들 세 연령 집단간의 도움정도는 차이가 없었다( $F(2,75)=.14, ns$ ).

## 논 의

도움을 받을 잠재수혜자와의 관계에 따라(좋아하는 친구나 모르는 아이나 아니면 싫어하는 아이나) 취학전 아동의 자발적 도움이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선물상자에 접어 넣은 종이가 많을수록 자신이나 잠재수혜자에게 더 좋은 선물이 주어지는 조건하에서 종이접기를 할 수 있도록 취학전 아동에게 5분간의 시간을 주고, 자신의 선물상자나 잠재수혜자의 선물상자에 자유롭게 종이를 접어 넣도록 하였다(이 과제는 어린 아동에게 다소 지루한 과제였음). 잠재수혜자의 선물 상자에 접어 넣은 종이의 수를 아동이 접은 종이의 전체 수로 나눈 백분율로 아동의 도움행동을 측정할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에서 예언한 바와 같이, 잠재수혜자가 아동이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아동은 그 타인을 위해 종이를 더 많이 접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잠재수혜자가 아동이 싫어하는 아이인 경우 아동들은 5분 동안 대부분 자신의 선물 상자에 종이를 접어 넣고(전체수행의 85%) 잠재수혜자의 선물상자에는 종이를 조금 접어 넣었다(전체수행의 15%). 반면에, 잠재수혜자가 아동이 좋아하는 친구인 경우에는 5분 동안 자신의 선물상자와 좋아하는 친구의 선물 상자에 50% 대 50%로 동일한 정도로 종이를 접어 넣었다. 잠재수혜자가 모르는 아이인 경우에는 아동이 전체 수행 중 30% 정도로 아동들은 모르는 아이를 위해 종이를 접어 넣었다.

취학전 아동이 모르는 아이나 싫어하는 아이보다 좋아하는 친구를 더 잘 돕는다는 본 연구 결과와 아동들이 모르는 아이나 친구가 아닌 아이도 친구와 차별 없이 또는 오히려 더 잘 돕는다는 결과는(Berndt, 1981b; Buhrmester, Goldfarb, & Cantrell, 1992; Fincham, 1978; Sharabany & Hertz-Lazarowitz, 1981; Staub & Noerenberg, 1981; Wright, 1942)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인다. 본 논의에서는 두 가지 상반된 양상을 제시된 도움상황과 아동의 연령과 관련시켜 논의해보고자 한다.

먼저, 도움상황과 관련시켜 살펴보면, 아동이 모르는 아이나 싫어하는 아이보다 친구를 더 잘 돕는 차별적 반응을 보이느냐,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상대에 관

계없이 동일하게 돕느냐 또는 오히려 모르는 사람을 더 잘 돕느냐는 도움상황이 자발적 상황이나 아니냐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동의 도움행동이 보다 자발적이 되도록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작을 하였다. 첫째, 아동이 잠재수혜자를 어느 정도 돕는지를 아무도 모르게 하였고, 둘째, 아동이 자유롭게 도움행동을 해도 좋고 아니면 재미있는 그림 맞추기 게임을 해도 좋도록 하였다. 즉, 아동으로 하여금 타인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급적 약화시키고, 착한 아이라는 칭찬을 받아야 할 부담도 약화시킨 상황에서 취약한 아동들은 모르는 아이나 싫어하는 아이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친구를 위해 지루한 과제를 더 열심히 하였다. 이 결과는 도와주라는 명시적 요구가 없을 때, 아동들이 친구가 아닌 경우보다 친구인 경우에 더 잘 돕는다는 연구 결과와(Staub & Sherk, 1970) 일치하고, 아동의 도움정도를 아무도 모르게 한 사적 상황에서는 취약한 아동이나 중학교 2학년생 모두 단지 얼굴만 아는 아이나 싫어하는 아이보다 친구에게 더 많이 나눠준다는 결과와도(Buhrmester, Goldfarb, & Cantrell, 1992) 일치하고 있다. 아마도 자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아동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정서적으로 더 쉽게 공감하거나 더 잘 돕게 되는 것 같다. 좋아하는 사람에게서 자발적 도움이 더 잘 일어나는 세부 기제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친구와 친구가 아닌 사람에게로 향한 아동의 도움행동이 차별적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동의 연령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아동들은 친구관계를 보다 이타적 상호교환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념화하기 때문에(Furman & Bierman, 1981; Sharabany, Gershoni, & Hofman, 1981; Youniss, 1980), 나이가 들수록 친구에게로 향한 도움성향은 더 두드러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 기대와 다르게 나이에 아동보다 오히려 어린 아동들이 친구가 아닌 수혜자보다 친구를 더 잘 돕는 차별적 도움행동을 보였다(Buhrmester, Goldfarb, & Cantrell, 1992). 학습장애아들이 정상아들에 비해 친구

에게 더 호의를 베푸는 결과도(Fincham, 1978)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다. 지적 능력이 증가하고 사회화과정이 진행되면서, 아동들은 강한 정서적 관여 없이도 타인의 곤경을 이해할 수 있고, 모르는 사람도 도와주어야 한다는 교육을 받게 된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아동들에게서 친구와 친구가 아닌 사람들을 차별적으로 돕는 행동이 감소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아동들은 나이가 들수록 가족과 친구 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 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차별적으로 도우려는 성향이 줄어든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Eisenberg, 1983). 따라서 취약한 아동들만의 도움행동을 다룬 본 연구는 발달적 관점에서 한계가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보다 자발적인 도움상황에서 어린 아동들과 나이에 아동들의 수행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대상은 미국 아동이었다. 그런데 타인의 복지와 관련된 친사회행동의 심리적 의미는 부분적으로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규범과 가치 문화적 관습, 그리고 개인이 성장한 사회에서 습득한 가치 및 목표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정서적 반응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상황에서 한국 아동의 도움행동 성향에 대한 연구가 후속 연구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개인사회로 대표되는 미국의 아동들의 도움 성향이 가족 중심적이고 관계 중심적인 한국 문화권에서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처럼 가족 중심적이고 관계 중심적 사회일수록 친구나 가족 이외의 사람들에 대해 배타적이 될 수 있고, 그런 경우에 낯선이에 대한 도움이 억제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에 사는 멕시코계 아동들이 미국 아동들에 비해 남을 더 잘 돕는다는 결과는 문화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암시해준다(Kagan & Knight, 1979, 1981; Kagan & Madsen, 1972; Knight & Kagan, 1977; Knight, Kagan, & Buriel, 1982; Knight, Nelson, Kagan, & Gumbiner, 1982).



## 참 고 문 헌

- Berkowitz, L.(1972). Social norms, feelings, and other factors affecting helping and altruism.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Vol. 6). New York: Academic Press.
- Berndt, T. J.(1978). *Children's conceptions of friendship and the behavior expected of friend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Canada, August.
- Berndt, T. J.(1981a). Age changes and changes over time in prosocial intention and behavior between friends. *Developmental Psychology*, 17, 408-416.
- Berndt, T. J.(1981b). Effects of friendship on prosocial intentions and behavior. *Child Development*, 52, 636-643.
- Berndt, T. J.(1981c). Relations between social cognition, nonsocial cognition, and social behavior: the case of friendship. In J.H. Flavell, & L. D. Ross (Eds.), *Social cognitive development: frontiers and possible futur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uhrmester, D., Goldfarb, J., & Cantrell, D. (1992). Self-presentation when sharing with friends and nonfriend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2, 61-79.
- Eisenberg, N.(1983). Children's differentiations among potential recipients of aid. *Child Development*, 54, 594-602.
- Eisenberg, N., & Pasternack, J. F.(1983). Inequalities in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whom do children assist? In R.L.Leahy(Ed.), *Child's construction of inequality*. New York: Academic Press.
- Fincham, F.(1978). Recipient characteristics and sharing behavior in the learning disabled.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33, 143-144.
- Fink, E. L., Rey, L. D., Johnson, K. W., Spenner, K. I, Morton, D.R., & Flores, E. T. (1975). The effects of family occupational type, sex, and appeal style on helping behavior.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1, 43-52.
- Furby, L.(1978). Sharing: Decisions and moral judgments about letting others use one's possessions. *Psychological Reports*, 43, 595-609.
- Furman, W., & Bierman, K. L.(1981). *A feature's model theory of children's conceptions of friendship*.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Boston.
- Gruder, C. L.(1974). Cost and dependency as determinants of helping and exploitation.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18, 473-485.
- Kagan, S., & Knight, G. P.(1979). Cooperation-competition and self-esteem: A case of cultural relativism.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0, 457-467.
- Kagan, S., & Knight, G. P.(1981). Social motive among Anglo-American & Mexican-American children: Experimental and projective measur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5, 93-106.
- Kagan, S., & Madsen, M. C.(1972). Rivalry in in Anglo-American and Mexican children of two ag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4, 214-220.
- Knight, G. P., & Kagan, S.(1977). Acculturation of prosocial and competitive behaviors among second-and third-generation Mexican-American children. *Journal of Cross-*

- Cultural Psychology*, 8, 273-284.
- Knight, G. P., Kagan, S., & Buriel, R.(1982). Perceived parental practices and prosocial development.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41, 57-65.
- Knight, G. P., Nelson, W., Kagan, S., & Gumbiner, J.(1982). Cooperative-competitive social orientation and school achievement among Anglo-American and Mexican-American children.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7, 97-106.
- Macaulay, J.(1975). Familiarity, attraction and charity.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95, 27-37.
- Piliavin, I.M., Piliavin, J. A., & Rodin, J.(1975). Costs, diffusion, and the stigmatized victim.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32, 429-438.
- Rheingold, H. L., Hay, D. F., & West, M. J.(1976). Sharing in the second year of life. *Child Development*, 47, 1148-1158.
- Schaps, E.(1972). Cost, dependency, and helping.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21, 74-48.
- Schopler, J., & Matthews, M. W.(1965). The influence of the perceived causal locus of partner's dependence on the use of interpersonal pow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 609-612.
- Sharabany, R., Gershoni, R., & Hofman, J. E. (1981). Age and sex differences in the development of adolescent intimate-friendships. *Developmental Psychology*, 17, 800-808.
- Sharabany, R., & Hertz-Lazarowitz, R.(1981). Do friends share and communicate more than nonfriend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 Development*, 4, 45-59.
- Staub, E.(1974). Helping a distressed person: Social, personality and stimulus determinants. In L.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7). New York: Academic Press.
- Staub, E.(1978). *Positive social behavior and morality: Social and personal influences* (Vol. 1). New York: Academic Press.
- Staub, E., & Noerenberg, H.(1981). Property rights, deservingness, reciprocity, friendship: The transactional character of children's sharing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0, 271-289.
- Staub, E., & Sherk, L.(1970). Need for approval, children's sharing behavior, and reciprocity in sharing. *Child Development*, 41, 243-252.
- Wright, B. A.(1942). Altruism in children and the perceived conduct of others. *Journal of Abnormal & Social Psychology*, 37, 218-233.
- Youniss, J.(1980). *Parents and peers in social development: A Sullivan-Piaget perspectiv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韓國心理學會誌：發達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 Developmental*

1999. Vol., 12, No. 2, 106-116.

## Effects of Closeness on Altruistic Behavior in Young Children

Young Sook Chong

Department of Psych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role of potential recipient's characteristics (liked, disliked, and unknown) in young children's prosocial responding (intentional, voluntary behavior that benefits another). Seventy-eight preschool children attending one of the three preschools in Arizona State University took part in this study. The subjects were asked to name one child who he/she either (a) likes to play with a lot; (b) does not like to play with at all; or (c) a name of a child who he/she doesn't know was provided. Next, the children were left alone in a room for five minutes to either play with a puzzle game or to complete a boring task (i.e., folding papers) for a prize. During the five minute play period, children were given an opportunity to share their prize with another child (liked, disliked, unknown) by putting their own folded papers into another child's prize box. Results show that children shared their prize most with liked friend and shared least with disliked.